폐질환 등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투병중인 '거지왕' 김춘삼씨와 부인 남윤자씨.

'거지왕' 김춘삼씨 힘겨운 투병

TV 드라마 '왕초'의 실제 주인공인 '거지왕' 김춘삼(78)씨가 고령에 폐질환까지 겹쳐 중환자실에서 힘겹게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3일 갑작스런 호흡 곤란으로 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뒤 지금까지 40여일 넘도록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고령인 데다 만성 폐색성 폐질환, 기흉, 만성 신부전증 등 6~7개 질환이 겹쳐 신체기능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라며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거동도 전혀 못해 코에 연결된 호스로 미음식을 주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女 조종사, 첫 국군의 날 축하비행

3전비단 박지연 대위

'국군의 날' 행사가 개최된 이후 처음으로 여군 조종사가 축하비행에 나서 화제다.

27일 공군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충남 계룡시 3군본부에서 열리는 건군 제5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 때 제8전투비행단 소속 박지연 대위(29·공사 49기)가 여군 조종사로는 처음으로 축하비행에 참가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사상 최초의 여생도이자 최초 여군 전투조종사, 최초 부부 전투조종사 등 각종 '최초' 기록을 갖고 있는 박 대위는 이번 행사에서 F-5E로 공중 편대비행을 선보일 계획으로 '최초'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달게됐다. 박 대위를 비롯한 49기 여생도들은 '최초'라는 상징성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국군의 날 행사에 참가했다.

건장한 남자 생도들도 견디기 힘든 열병과 분열 훈련이었지만 행사 끝 무렵 선배들의 멋진 축하비행을 보면서 훈련의 고단함을 잊었다고 한다.

"아들의 못다 핀 꿈, 후배들이 이뤄 주길…"

輪禍 사망 박준형군 부모, 보험금 1억원 모교 기탁

살레시오고, 기념비 제작·'박준형 장학회' 설립키로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부모가 아들의 모교에 장학금을 내 놨다.

40대 중반 부부가 지난 26일 오후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 교장실을 찾아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장동현(44·신부)교장이 건네받은 봉투에는 1억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다.

이 돈은 한 달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외아들 박준형(당시 18·사진)군의 보험금. 졸업 후에도 자주 찾던 모교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했다.

준형(당시 조선대 체육학과 2년)군은 지난 8월 21일 집 인근 북구 삼각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2005년 2월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한 준형 군의 빈소에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조문을 와 눈물 바다가 됐다.

남달리 모교에 대한 사랑이 깊었고, 친구들에 대한 정이 많았던 준형군이 갓 스무살도 넘기지 못하고 요절한데 대한 슬픔이었다.

준형 군은 참변을 당한 사흘 뒤 사랑하는 부모와 친구, 선생님들을 저 멀리하고 한줌의 재로 뿌려졌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부모는 식음을 전폐 했다. 이 때 찾아와 위로해주고 눈물을 흘렸던 아들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큰 힘이 됐다.

부모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뜬 준형이를 기리는 뜻에서 보험금으로 받은 1억원을 의미 있는 데 쓰기로 마음을 먹고 준형이의 모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했다.

장 교장은 27일 "준형이는 졸업후에도 선생님들을 뵙기 위해 자주 학교를 찾을 정도로 애정이 깊은 학생이였다"며 "부모의 아름다운 뜻이 훼절되지 않도록 가난이 걸림돌이 돼 대학진학을 걱정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조만간 '박준형 장학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준형 군의 자취를 찾고, 부모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학교주변에 조그마한 기념비 등 기념물도 만들 계획이다.

어머니 김미령(43)씨는 "준형이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성장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그런데 준형이는 이 세상에 없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인성계발활동의 시간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체험했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배우고자하는 참다운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기쁨을 표현했고, 어려운 순간에도 성숙한 자세로 극복하려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준형 군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영화배우 톰 행크스 '가장 믿을만한 유명인'

할리우드 톱스타 톰 행크스가 미국 경제지 포브스 선정 '미국에서 가장 믿을 만한 유명인'에 뽑혔다고 AF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통신은 "'포레스트 검프', '아폴로13' 등을 통해 영웅적이고 감동적인 연기를 펼쳤던 톰 행크스는 1천500명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수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2위는 TV 스타 레이철 레이가 차지했으며, 마이클 J.폭스가 3위에 올랐다. 또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 '스타워즈'에서 다스 베이더를 연기한 제임스 얼 존스가 각각 4~5위를 이었으며, 이밖에도 톱 10 안에 든 배우로는 덴절 워싱턴, 모건 프리먼, 리즈 위더스푼 등이 있다.

섹소폰 연주는 사랑을 싣고~ ♪

목포해경 서광열 계장

불우이웃·환자 찾아 섹소폰 연주

서투른 실력이지만 가슴 따뜻한 사랑의 색소폰 연주가 각박한 세상 감동을 던져주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폐기물관리계장 서광열(47)씨는 색소폰을 배운지 27일로 18개월된 초보이지만 따뜻한 가슴, 사랑으로 토해내는 그의 연주는 어느 연주자 보다 아름답고 감미롭다.

그는 특히 불우시설과 병원 등 그늘진 곳을 찾아 다니며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고있다.

그의 불우 이웃을 위한 색소폰 연주는 지난 3월 외로움에 지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무안 애증원에서 첫 데뷔했다.

"평소 음악을 좋아한데다 직장 상사의 권유로 색소폰을 불게 됐다"는 서씨는 "취미로 시작한 색소폰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될 만큼 보람되고 즐겁다"고 활짝 웃었다.

서씨는 26일에도 오후 의사와 교사 등으로 구성된 '유달동우회' 회원들과 목포 중앙병원 로비에서 사랑의 색소폰을 연주했다. 환자와 병원 관계자 등 50여 명의 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는 '사랑을 위하여', '만남', '목포의 눈물' 등 20여곡이 연주됐다.

목포해경 폐기물관리계장 서광열(47·왼쪽에서 3번째)씨가 26일 목포 중앙병원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다.

관객들은 감미로운 색소폰의 선율에 푹 빠져 들었으며 특히 환자들은 환한 웃음꽃이 피며 잠시 힘든 투병 생활도 날려 보낸듯 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골프계 큰 별 지다

11회 연속우승 '전설의 골퍼' 넬슨 사망

세계 골프계의 큰 별로 자리잡았던 바이런 넬슨이 26일(이하 현지시각) 텍사스주 로어노크의 자택에서 숨졌다고 텍사스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향년 94세.

넬슨은 지난 1945년 미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지금껏 깨지지 않고 있는 11개 대회 연속 우승의 대기록을 작성하는 등 메이저대회 5승을 포함해 투어대회에서 52승을 기록했으며 그의 다승 기록을 넘은 골퍼는 샘 스니드(82승), 잭 니클로스(73승), 벤 호건(64승), 아널드 파머(62승)에다 지난달 53승을 달성한 타이거 우즈 뿐이다.

1945년 당시 한해에 열린 대회가 30개에 불과했지만 11연승을 포함해 18승을 달성하며 독무대를 열었던 그는 이때 준우승만도 7개 대회였고 평균 타수가 68.33타였다.

우아한 스윙과 깔끔한 매너로도 유명한 넬슨은 또 1942년부터 1946년까지 65개 대회 연속 톱10을 달린 기록도 갖고 있으며 1944년과 1945년 두해에 거둔 우승만 54개 대회중 31개나 됐다. 텍사스 롱브랜치에서 면화 농장을 하는 부친 밑에서 태어난 그는 포트워스의 글렌가든CC에서 골프장 캐디로 일할때 동갑인 벤 호건과 함께 프로골퍼의 꿈을 키워나갔다.

마침내 1932년 프로 무대에 뛰어들어 1935년 첫승을 달성했으나 변변한 프로대회가 없어 1944년까지 주로 골프장 소속 프로로 일하면서 대회에 출전했고 1945년 대기록에 이어 1946년에도 6승을 추가, 전성기를 여는가 했으나 위장이 악화되면서 1951년 빙크로스비 프로암 우승을 끝으로 더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채 일찌감치 필드를 떠나야 했다.

넬슨은 1953년 PGA투어, 1974년 세계골프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각각 가입했고 1960년대에는 TV 골프 아나운서로 활약하기도 했다.

우량中企-어촌계 '어촌사랑 자매결연'

광주·전남지역 32개 우량 중소기업은 2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본부 회의실에서 목포수협 구로어촌계 등 전남도 6개 어촌계와 어촌사랑 자매결연을 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농촌公 전남본부, 복지시설 6곳에 위로금

한국농촌공사 전남본부(본부장 장치원)는 26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광주 나자렛집 등 광산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6개소 원장들을 초청해 위로금을 전달했다.

〈한국농촌공사 제공〉

KT&G, 광주비엔날레 후원금 1억 기탁

KT&G 홍문봉 전남본부장은 27일 (재)광주비엔날레를 방문, 1억원의 후원금 기탁증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범순규 전남본부 영업부장, 홍문봉 전남본부장, 김재규 (재)광주비엔날레 사무총장, 송상락 (재)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

'KBS 바른 언어상'에 김미숙·한진희 선정

〈한진희씨〉

〈김미숙씨〉

탤런트 김미숙과 한진희가 '제8회 KBS 바른 언어상'의 수상자로 결정됐다.

27일 KBS에 따르면 KBS 1FM '세상의 모든 음악 김미숙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는 김미숙은 'KBS 바른 언어상'의 4개 부문 가운데 라디오 진행부문 수상자로 선정됐고, 한진희는 KBS 1TV 드라마 '열아홉 순정'에서 바른 언어를 제대로 구사했다는 이유로 특별상 부문에서 수상하게 됐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정종현씨 장남 창원군 윤순보(광주시 체육시설관리소장)씨 막내 형주양=30일(토) 낮 12시 20분 상록회관 3층 무궁화홀.

▲박춘자씨 장남 김형두(SK 이노에이스 과장)군 강충일(전 전남도교육청)씨 3녀 민정양=30일(토) 낮 12시40분 오페라하우스 1층.

▲안두례씨 장남 조성우군 이영혜씨 차녀 김은영양= 30일(토) 오후 4시 오페라하우스 특실.

▲문병옥(신시네크 회장)씨 차남 재기군 카탈리노 말라리씨 차녀 한아름양=10월1일(일) 낮 12시 서울시 도봉구 번동 드림웨딩문화센터 2층 다이아몬드홀.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광주시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위탁 및 위탁 가정 상담.351-1206,1207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 28회 동창회(회장 이혁) 월례회=28일(목) 오후 7시 등촌. 373-1566

▲북성중 제 29회 동창회(회장 고광재) 월례회=29일(금) 오후 6시30분 용봉골 함평한우. 515-0988

▲조선대 경상대 동문회 창립총회(준비위원장 이성민 교수)=30일(토) 오후 4시 경상대 대형강의실.

▲광주 지산초교 제 38회 동창회(회장 최종채) 모임=10월 1일(일) 오후 7시 무등골. 011-620-5729

▲송원고 총동창회 한마음축제=10월 15일(일) 오전 9시 구 송원고 대운동장. 010-7212-0085

향우회

▲재광 고흥 대서면 향우회(회장 정광영) 모임=29일(금) 오후 7시 동광빌딩 1층 소담식당. 011-640-1429, 011-613-7781

▲재광 곡성군 삼기면 향우회(회장 김채정) 모임=10월 1일(일) 오후 7시 예술영양돌솥밥. 266-5566

모집

▲남구 레고교육센터 교육생 모집=베이비짐(12~48개월)·스킬과정(5~7세)·테크닉과정(초등~중1·2년)·로봇과정(초등 2년 이상·중학생) 교육생 모집.봉선동 삼익2차 APT옆. 문의 654-4113

▲쌍촌종합사회복지관, 교육생 모집=한식·양식·중식·일식조리, 미용,제과·제빵, 피아노,컴퓨터 기초과정 및 자격증반. 문의 375-0035~6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무료. 018-610-3360

▲사진회원 모집=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는 자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정기 현장 촬영. 010-3638-0289

▲동운철학원 역리철학 수강생 모집=매주 3회 6개월 과정. 명리학·성명학. 376-9396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 보조인 모집=북구 운남동 체험홈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부음

▲정복순씨 별세 김재호·재원·재삼·재례·재숙·미덕씨 모친상 서영석·범진옥·오상열씨 빙모상=발인 29일(금)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류재훈씨 별세 동명·동방·동석·연숙·미숙씨 부친상 안남이·최창주씨 빙부상=발인 29일(금) 금호장례식장 402호. 227-4314

▲이계천씨 별세 신범·양범씨 부친상 송광석씨 빙부상=발인 29일(금) 무등장례식장 101호. 515-4488

▲정맹례씨 별세 장병용씨 모친상 정재진·정병진·송정호·김남수·전주석씨 빙모상=발인 29일(금) 무등장례식장 201호. 515-4488

▲차용석씨 별세 태승·미숙·미경·정화·미화·현화씨 부친상 김옥남·민섭(대한페이퍼텍(주) 총무팀장)·노경수·박세희·정해건씨 빙부상=발인 28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231-8901

▲박형권(전 영광군수)씨 별세 영걸(전남대 의대 안과 교수)·창우·방자·복희·숙희·옥희·순희씨 부친상 홍룡(안과 의사)씨 조부상 임경수·김보균·최점호(임실 삼계 초등 교감)·문찬·윤영근(내과 원장)씨 빙부상=발인 28일(목)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220-6983